

20여곳 공사 지연·하도급 피해 우려

■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광주·전남 파장은

‘반값 수주’ 영산강 하구둑 사업권 주목

보증보험 가입 아파트 입주자 피해 미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에서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의 피해 여부에 관심이 쏟고 있다.

4일 지역 건설업계에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남양건설이 광주·전남에서 시공 중인 사업은 영산강 하구둑 2공구 등 모두 20곳에 달한다.

가장 주목되는 공사는 2천52억원 규모의 농어촌공사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2공구, 남양건설은 이 사업 수주를 위해 지난달 21일 총 공사비의 절반 수준인 1천32억원을 제시, 한양을 따돌리고 어렵게 사업권을 확보했다.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장명식 영산

강사업단장은 “사업자 선정 이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남양건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동부건설이 이어받게 되고, 동부마저 포기할 경우 한양으로 넘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국토부 사업으로는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211억원),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터미널 쭉조(265억원), 여수국가산단입도로 3공구 개설공사(374억원) 등이 있다.

광주시 발주 공사로는 동복계통 자연유수도 도수터널 건설 공사와 빙고을 시민문화관 건립공사 등 2건이 있

다. 732억원 규모의 도수터널 공사는 남양건설이 대표사로 5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남양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더라도 공동 도급사가 있어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 또 광주시가 선금으로 90억원을 이미 지급 했지만 체권 확보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에서는 학순 도암~장류 유치 지방도 확포장 공사(955억원)와 신금~하촌 국지도 확포장 공사(617억원), 도포지구 상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108억원) 등 3개 사업권을 따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공권리는 남양에 있다”며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자체 공급도 고도 하도급과 직접 계약해 공사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사업은 광주시 남구 봉산동 남양휴튼 2차 315 가구와 LH(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수완 2개 사업장(826가구, 1천215가구)과 백운 2(754가구), 양동(716가구), 지산(375가

구), 학동 2(797) 등 5개 지구 6개 현장이다. LH 사업장의 공정률은 27~97%다.

하지만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봉산동 남양휴튼은 제외하고는 모두 도급 형태로 이뤄지는 공사이기 때문이다. 남양휴튼의 경우도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이 체결돼 있어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양건설이 부도·파산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보증사고 현장으로 처리돼 분양금은 떼이지 않더라도 입주일은 늦춰질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공사가 바뀔 수 있어서다.

반면 하도급업체들의 일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공사대금 지불이 2년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현장의 하청업체는 광주 33개, 전남 10개 업체를 포함 모두 90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동·박정욱기자 jwpark@



미국 애플사의 태블릿 PC 아이패드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 시판에 들어간 지난 3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의 애플 매장에서 한 남성이 아이패드 2개를 양손에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패드’ 美서 본격 출시

휴대용기기 지각변동 예고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가 3일 미국에서 출시되면서 휴대용기기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아이패드의 경우 저렴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로 대중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와이파이(Wi-Fi) 16GB 모델은 499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AT&T를 통해 공급되는 아이패드는 월 14.99달러에 데이터 250MB를 이용할 수 있고 29.99달러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장점은 아이패드가 네트워크나 전자책, 게임 기, PMP 등 기존 휴대용기기의 성능을 완전히 포괄하고 있어 더욱 두드러진다. 나아가 범용 PC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만능기기’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는 따라서 아이패드가 기존 휴대용기기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딜로이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블릿PC의 올해 판매량은 1천만대로 예상하고, 크기와 무게, 성능 등 측면에서 노트북PC나 스마트폰을 넘어서 IT업계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光銀, 남양 협력사 유동성 지원

70여 곳 상환 연장

광주은행은 4일 남양건설이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함에 따라 일시금 지급금이 우려되는 광주·전남 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다양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

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은 상환 기일 연장, 분할상환 유예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70여 곳으로 주 사업장이 광주·전남에 있고 광주은행을 주거래로 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광주은행은 이를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Fast-Track(신속자금지원)’을 적용해 상환기일 연장 및 분할 상환금 납입을 유예해 주기도 했다.

또 관련 기업이 발행한 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부도 반환된 할인여부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최고

20억원 한도로 1.0% 포인트를 우대해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조해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0.5% 포인트를 추가 우대해 긴급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확정 시 협력업체 회수 예상가액의 100%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용규모 5년간 ‘제자리’

임금은 1년새 421만원 ↑

주요 상장사들의 고용 규모가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금융사 제외) 중 최근 5년간 비교 가능한 90개사의 종업원은 작년 말 현재 59만2천372명으로 2005년 말 대비 9천269명, 비율로는 1.58% 늘었다.

영향으로 공공부문 공사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경기 회복이 어려워 공사수주액은 작년보다 1.5% 감소한 2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우기자 jwpark@

/연합뉴스

이는 1분기에 6천506억원(20.7%) 가량을 집행하기로 한 애초 목표보다 소진 속도가 빠른 것이다.

여기에 1분기 중에 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자금 규모를 합하면 소진을 더 높여 늘어난다.

특히 괄목수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경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은 3천 억원 중 1천656억원이 집행돼 소진을 이 52.4%나 됐다.

이는 1분기에 6천506억원(20.7%)

가량을 집행하기로 한 애초 목표보다 소진 속도가 빠른 것이다.

여기에서 1분기 중에 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자금 규모를 합하면 소진을 더 높여 늘어난다.

특히 괄목수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경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은 3천

억원 중 1천656억원이 집행돼 소진을

이 52.4%나 됐다.

이는 1분기에 6천506억원(20.7%)

가량을 집행하기로 한 애초 목표보다 소진 속도가 빠른 것이다.

여기에서 1분기 중에 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자금 규모를 합하면 소진을 더 높여 늘어난다.

특히 괄목수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경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은 3천

억원 중 1천656억원이 집행돼 소진을

이 52.4%나 됐다.

이는 1분기에 6천506억원(20.7%)

가량을 집행하기로 한 애초 목표보다 소진 속도가 빠른 것이다.

여기에서 1분기 중에 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자금 규모를 합하면 소진을 더 높여 늘어난다.

특히 괄목수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경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은 3천

억원 중 1천656억원이 집행돼 소진을

이 52.4%나 됐다.

이는 1분기에 6천506억원(20.7%)

가량을 집행하기로 한 애초 목표보다 소진 속도가 빠른 것이다.

여기에서 1분기 중에 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자금 규모를 합하면 소진을 더 높여 늘어난다.

특히 괄목수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경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은 3천

억원 중 1천656억원이 집행돼 소진을

이 52.4%나 됐다.

이는 1분기에 6천506억원(20.7%)

가량을 집행하기로 한 애초 목표보다 소진 속도가 빠른 것이다.

여기에서 1분기 중에 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자금 규모를 합하면 소진을 더 높여 늘어난다.

특히 괄목수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경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은 3천

억원 중 1천656억원이 집행돼 소진을

이 52.4%나 됐다.

이는 1분기에 6천506억원(20.7%)

가량을 집행하기로 한 애초 목표보다 소진 속도가 빠른 것이다.

여기에서 1분기 중에 자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자금 규모를 합하면 소진을 더 높여 늘어난다.

특히 괄목수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경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은 3천

억원 중 1천656억원이 집행돼 소진을

이 52.4%나 됐다.

이는 1분기에 6천506억원(20.7%)

가량을 집행하기로 한 애초 목표보다 소진 속도가 빠른 것이다.

여기에서 1분기 중에 자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자금 규모를 합하면 소진을 더 높여 늘어난다.

특히 괄목수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경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은 3천

억원 중 1천656억원이 집행돼 소진을

이 52.4%나 됐다.

이는 1분기에 6천506억원(20.7%)

가량을 집행하기로 한 애초 목표보다 소진 속도가 빠른 것이다.

여기에서 1분기 중에 자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자금 규모를 합하면 소진을 더 높여 늘어난다.

특히 괄목수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경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은 3천

억원 중 1천656억원이 집행돼 소진을